

#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메드스타 기업부설연구소팀

## 벤처 .. Again, .. 메드스타 .. Again ..

**입** **준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동장군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던 2005년의 어느 일요일, 오늘 같은 날에는 늦잠을 즐기거나 따뜻한 안방에서 영화나 한 편 감상해도 좋을런만, 휴일도 있는 채 묵묵히 연구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비인후과 진료장치 및 영상시스템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메드스타'의 연구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3월에 열리는 의료기기·정보전시회 'KIMES 2005'를 통해 2005년을 회사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로 저울도, 주말도 있는 지 오래이다.

"크리스마스에도 회사를 지키는 연구원에게 '해인 없냐'고 농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신 장비가제 애인'이라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올해 회사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설수 있는 메드스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요일도 있는 채 신 장비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회사를 찾은 김석준 이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인터뷰 도중에도 개발중인 제품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믿음직스러울 그 자체였다. 비록 4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평균연령 20대 후반의 젊은 피들이라 도전은 매섭고 겁이 없어 보였다. 이비인후과 장비제조에 특화된 회사라 스프레이장비 등을 개발할 때는 서로의 목과 귀 속까지 들여다보며 독특한 팀워크를 쌓아간다고. 그래서일까,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들은 손발이 착착 맞는다. 작년 12월 이재욱 대리의 이버님 환갑때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화환을 보냈고, 대표는 금일봉을 보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팀원들의 단합을 통해 3년 후 매출 200억원의 의료기기종합 솔루션 업체로 성장한다는 청사진을 그들은 한 장 한 장 만들어 가고 있다.

일요일이 월요일 같은 메드스타의 숨은 진주, 연구소 팀원들, 그들에게 '그들만의 일요일'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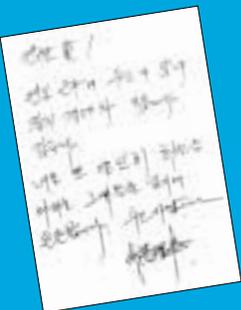
Sunday is a Uplift!  
a-ha, a-ha yeah~  
- 김용태 실장 -

아니죠, 아니죠. 모름지기 일요일이란  
앞으로 워어도 똑같고, 뒤집어 워어도  
똑같은 날. 토요일, 일요일. 봐요 그렇죠?  
아~ 근데 왜 뒤집어지겠냐고요!!  
- 홍동기 사원 -

일요일이요? 대리님,  
그런 날이 있었나요?(글적글적)  
일주일은 월화수목금. 금. 금  
아니었어요?-김수현 사원-

아마 '여가를 선용하고, 활력도  
충전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날' 일  
겁니다. 저희요? '집무에서  
탈출하여, 연구에 매진하며,  
야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재욱 대리-

애들이 힘들지~ 응원하러 내가 왔잖아.  
힘든 거 알지만, 재! 3월 달까지만  
힘 좀 내봐. 다들 내 이름 걸고  
휴가 보내 줄게~ - 김석준 이사 -



▲ 메드스타 어금인도 대표는 휴일도 반납한 이들을 위해 가끔 야식을 싸서 온다. 팀원들이 없을 땐 이렇게 자상한 메모를 남긴다고.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료들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로 문의 신청해 주세요. 물과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 담당자 : 김지원 (zmail@empal.com, 02-515-3681) \*

“한

4년쯤 됐나요? 어려서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빠져든 건 제대 후 제 방에 ADGL을 깔면서부터였어요, 지금이요? 정확히는 몰라도 1500장은 족히 넘을걸요.” 종합 컨설팅, 엔지니어링 토털 솔루션 업체인 '우암닷컴'의 e-BIZ 개발팀에서 영상회의·교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운상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애니메이션 마니아다. CD는 분량이 짧아 정리도 힘들어 요즘은 아예 대용량의 DVD미디어로 수집 중이란다. 그렇게 모은 DVD도 벌써 150여 장. 보유한 CD가 이렇게 많다보니 그에게서 CD를 빌려 백업시디 장사를 한 친구도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귀뜸한다.

회사일과 틈틈이 있는 동호회 정기모임, '애니상영화' 참석, 동호회 사이트에 감상문 올리기 등으로 주말에도 이운상 씨는 더 바쁘다. 하지만 보고싶은 CD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고, 주위에서 요청하면 힘들게 모은 영화들을 기꺼이 내놓는다고, 이렇게 삶의 중심이 된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개발자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코딩을 하다가 막힐 때의 답답함은요, 그럴 때 저는 일을 접고 애니메이션을 한두 편 봅니다. 그리고 나면 일이 쉽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애니메이션은 저에게 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줍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그는 영화감상과 함께 올해 욕심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일본어회화이다. 그간의 취미생활로 이미 자막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제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할 차례라고, 일본어를 익혀 일본의 프로그램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익힌다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그래서 더더욱 애니메이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그간 모은 애니메이션 타이틀을 입에 칭이 미르도록 자랑하는 이운상 씨처럼 켜켜이 여러분도 일석이조의 취미,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이운상 씨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특선

- 별의 목소리 ● 30여 편의 짧은 러닝타 임이지만 사랑에 관한 애뜻한 내용과 수준급의 액션신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
- 공각기동대 ●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 TV판은 다시 한번 보기를 강추. 특히 2회에 등장하는 거미형 전자 이야기는 인간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이다.
- 플로네테스 ● 현실에 좌절하고도 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다룬 작품. 허무맹랑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것이다.



Venture in,  
벤처스  
→ Funny Venture

우암닷컴 이운상 씨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빠~져 봅시다~